

뉴딜 소규모 재생 8곳 선정

전북도, 민선7기 들어 첫번째 공모사업에 전주 '천사길 사람들의 마을공작소 운영' 무주 '마을사랑방' 등... 국비 9억여원 확보

전북도는 민선7기 들어 첫 번째 중앙공모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발표하고 참여하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이 8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54개 사업 중에서 전주시 '천사길 사람들의 재미있는 마을공작소 운영' 사업과 무주군 '마을사랑방 노닥 노닥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등 6개 시·군 8개 사업이 포함되어 국비 9.5억 원을 확보했다.

또 전체 국비 지원액 50억 원 중 19%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9개소 신청에 8개소가 선정되어 선정율을 89%를 기록하기도 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공모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인구, 산업, 주거)을 충족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이나 단체가 아닌 10인 이상의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도서관 등 소규모 H/W 사업과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으로 사

업별로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시·군비 매칭 50%)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해당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신청,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효과성을 적극 어필하여 서면평가와 주민 대표 발표평가를 거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첫 번째 선정된 중앙공모사업이고,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 제안형 사업이 주민 자치조직과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점검·보완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사업을 계획에서 사후관리까지 스스로 추진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시·군 주민조직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내년 예산 확보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은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김수홍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과 김광수 의원(전주갑, 민주평화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바른미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민주평화당), 김관영 의원(군산, 바른미래당),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 더불어민주당)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을 연고로 둔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예산확보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 힘 실린다

군산공설시장 활성화 10억원
옥서지구 배수개선 100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옥서·나포 각각 40억원 확보
김관영 의원 "예산 확보 온힘"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농림부가 주관하는 옥서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100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옥서 나포 지역 각각 40억 원 등 확보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경제 침체에 따른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연이은 국비 확보에 지역 사회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김관영 의원의 대정부 활동

동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관계의 평가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위기 타개에 밑거름이 될 사업들"이라며 "앞으로도 제3당 원내대표로서 지역 예산 확보에 더 큰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2018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청 시장 개발 부분에 선정된 군산공설시장에는 전국 유일의 전통시장 투어 상품 개발에 투입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각종 국비예산 확보로 침체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국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군산)은 지난 3일 군산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상곤 부총리 "자사고 지원자, 일반고 지원 방안 이달 내 확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평준화지역 자사고 지원자도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이달 안으로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임의로 배정되거나 학교군내에서 배정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는게 현재

결정의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학 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이 일반고를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자사고 운영 재단과 자사고 희망 학생·학부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의 이번 결정과 관

련해 "자사고의 입시체계가 외고·국제고와 같은 점을 고려해 이들 학교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고교체제 개편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정지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동시에 뽑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가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만큼 고교서열화 해소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미다. /뉴시스

제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일단락

상임위원장단 선출 마무리
운영위원장에 김대중 의원
"의회-집행부 간 의사교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환경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지난 9대 도의회의 원 시절 쌓은 소중한 경험을 살려 의정활동 지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김대중(정읍2), 두세훈(원주2), 홍성임(민주평화당 비례), 성경찬(고창1), 황의택(무주), 김철수(정읍1), 오평근(전주2), 최영심(정의당 비례), 이병도(전주3), 이정린(남원1), 김희수(전주6)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김진성 기자

'올 여름은 전북으로'
도내 곳곳 배수욕장
내일부터 순차 개장

전북지역 배수욕장이 오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 배수욕장이 오는 6일부터 개장해 다음달 16일까지 운영한다.

개장 첫날인 6일에는 구시포와 동호, 변산, 격포, 모항, 위도 등 7개 배수욕장이 문을 열고 16일에는 선유도 배수욕장이 개장한다.

앞서 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물놀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배수욕장의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등 각종 관리기준 적합성 여부를 점검했다.

또 소방교부세 및 지방비를 확보해 86명의 유급 민간안전요원을 증원 배치했고, 해경과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안전하게 배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배수욕을 즐겨야 한다"며 "음주 후 입수 등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